

【논문】

## 이이의 리통기국 이론의 형이상학적 결여(缺如)\*

손영식

【주제분류】 성리학, 한국 유가 철학, 동양 철학

【주제어】 리통기국(理通氣局), 기발리승(氣發理乘), 승기지리(乘氣之理), 유행지리(流行之理), 일원화.

【요약문】 (1) 이이는 성혼과의 논쟁을 통해서 ‘리통기국’ 이론을 세운다. 이는 기대승이 주장한 ‘기발리승’ 이론의 변용이다. 이이는 “기발리승(氣發理乘) → 기를 탄 리(乘氣之理) → 리통기국(理通氣局)”으로 나간다.

이이는 일원론의 길로 나간다. 그가 리와 기를 말하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리를 괄호치고 기만 남긴다. 리발을 부정하여 기발 하나로 간다. 4단은 7정에, 본연지성은 기질지성에 포함시켜서 일원화한다. “리=무형 무위 불발(不發)”이라 하여 사실상 비존재로 만들고 기만 남긴다. 인심-도심이 시간적으로 교대된다고 하여 하나의 길로 만든다. 또한 기가 리를 국한시켜서 개별 사물이 생겨난다(理通氣局). 그 결과 리는 개별 사물의 특성이 된다. 이는 주희가 말한 리가 아니다. 기만 남는 일원론이다. 리통기국의 경우, 기가 리를 국한시킨다. 기는 규정자, 리는 피규정자이다. 이는 ‘리-규정자, 기-피규정자’라는 형이상학의 일반적 이론을 뒤집는 것이다.

(2) 일원화의 결과 마음은 기이다.(心是氣) 기인 마음이 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질을 변화시켜야 한다. 기가 주관(마음)이라면, 리는 객관이다. 객관인 리는 예(禮; 관습과 규범)이다. 기질을 변화시켜서 예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순자의 성악설과 같다.

이이의 이론은 논리적으로 발전시켰다면, 경험론이 된다. 그러나 그 후예들은 그렇게 발전시키지 못 했다.

\* 이 논문은 2012년 울산대학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1. 들어가는 말

이이(李珣)의 철학은 기 중심의 일원론(혹은 정확하게는 ‘일원화’)이다. 이는 멀리는 「천도책(天道策)」에 이미 나타난다. 「천도책」은 과거 시험 답안지이며, 제시된 문제가 ‘자연 현상을 설명하라’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로서 자연을 설명하게 되었다. 또한 내용 자체가 자연학적이며, 이이 철학의 특색이 그다지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이이는 성혼과의 편지 논쟁을 통해서 기 중심의 일원론을 만든다.<sup>1)</sup> 그 핵심은 리통기국 이론이다. 이는 주희의 리-기 이원론과 다른 별개의 이론이다. 이이는 ‘리통기국’이 자신이 스스로 발견하여 터득한 것이라 한다. (이이 6서)

송나라 때에 성립한 신유학은 ‘마음-리·기’ 계열의 주희, ‘마음-기’ 계열의 호남학(호평), ‘마음-리’ 계열의 육구연으로 갈린다. 이 셋은 마음을 중심으로 하는 관념론의 계보이다. 여기에 왕안석의 제도 개혁론도 있다.

이이의 리통기국 이론은 관념론의 셋 가운데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이이는 ‘心是氣’를 주장한다. 따라서 호남학 계열에 가깝다. 또한 명나라의 나흠순<sup>2)</sup>도 그 계열이다. 리통기국 이론도 전체적으로는 호남학의 기 중심의 이론과 맥을 같이한다.

리통기국 이론은 이이의 형이상학이다. 그것이 형이상학인 한, 그 정합성을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이 글에서 필자는 이이의 리통기국 이론이 가진 형이상학적 흐름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1) 본 논문은 성혼과 이이가 편지로 논쟁했던 글에 근거한다.

2) 나흠순(羅欽順, 1465~1547)은 명대 중반기의 정치가 사상가. 자는 윤승(允升), 호는 정암(整菴). 그는 기(氣) 중심의 이론을 전개해서, 왕수인이 마음을 리(理)로 본 것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理氣 一物’을 주장했는데, 이는 이이의 ‘理氣 妙合’과 같다. 주저는 『곤지기(困知記)』이다.

## 2. 성혼과 이이의 논쟁

### 1) 둘의 경전적 근거

이이의 대표적인 이론은 “리통기국理通氣局, 심시기心是氣, 성심정의性心情意 일도설, 궁리窮理-거경居敬-역행力行的 수양론”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유명한 것이 ‘理通氣局’의 이론이다. 이이는 성혼과의 논쟁에서 그 이론을 만들어 제시한다. 그 둘은 47 논쟁에 대해서 각각 이황-기대승의 입장을 지지한다.

그 둘의 논쟁은 성혼이 47 논쟁에서 이황의 이원론적 입장을 지지하는 새로운 증거(아래 (2)번)를 제시하자 이이가 반박하면서 시작된다. 성혼은 주희 등이 말한 구절을 제시한다. 반면 이이는 기대승의 ‘기발 일원론’에 근거해서 자신의 이론을 개발한다. 다시 말해서 성혼이 주희의 ‘인심-도심’에 대해서 『중용』 주석서에서 했던 말을 근거로 해서 이황의 4단과 7정을 각각 리와 기에 연계시키는 이원론을 지지한다. 이이는 기대승의 47 일원론을 지지하면서, 그 근거로서 리와 기를 일원화시키는 리통기국 이론을 제시한다.

#### A. 성혼이 제시한 구절들 - 이원론

- (1) 주희: 『주자어류』 53-83, “四端是理之發, 七情是氣之發.”
- (2) 주희, 『중용장구』 서문: 聖神繼天立極, 而道統之傳有自來矣. ... ‘允執厥中’者 堯之所以授舜也.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者 舜之所以授禹也. ... 心之虛靈知覺 一而已矣. 而以為有人心道心之異者, 則以其或生於形氣之私, 或原於性命之正, 而所以為知覺者不同. 是以或危殆而不安, 或微妙而難見耳.(성혼 1서)
- (3) 진순(陳淳, 北溪) 『성리대전』 32; “然這虛靈知覺, 有從理而發者, 有從氣而發者, 又各不同也.” (성혼 4서, 5서) 『북계자의』에는 氣 → 심으로 되어 있다. 『성리대전』 본이 리-기의 짝을 맞추므로 논리적이다.

- (4) 황간(黃幹; 勉齋) 『성리대전』 31 “然方其未發也, 此心湛然, 物欲不生, 則氣雖偏而理自正. ... 及其感物而動, 則或氣動而理隨之, 或理動而氣挾之.”  
 『면재집』8 「復李公晦書」, “人指此身而言, 道指此理而言. 發於此身者, 則如喜怒哀樂是也; 發於此理者, 則仁義禮智是也.” (이이 9서. 황간의 말은 『역주 사단칠정 논쟁』 권1, 333쪽에서 인용함.)

(1)은 이황이 든 것이고 이이가 2서에서 인용한다. (2)를 본 성혼은 이황의 입장이 맞음을 확신하고 이이에게 편지를 보낸다. 여기에서 논쟁이 시작된다. 진순과 황간은 주희의 대표적인 제자들이다.

### B. 이이가 드는 전고(典故)들 - 일원론

- (1) 정이, 『경설(經說)』, “動靜無端, 陰陽無始”.  
 『근사록』 권1에 수록됨. (이이 4서)
- (2) 공자, 『논어』 「위령공」 28, “人能弘道, 非道弘人”.  
 (이이 6서, -氣發理乘 일도설)
- (3) 정호, 『하남 정씨 유서』 1, “生之謂性, 性卽氣, 氣卽性, 生之謂也. ... 理有善惡”
- (4) 주희, 『주자대전』 58, “氣質之性, 只是此性 墮在氣質之中. 故隨氣質而自爲一性.”  
 (이상 둘, 이이 6서-본연지성은 기질지성 속에 있는 리이다.)
- (5) 주희, 『주자대전』 46 「답황상백」, “論萬物之一原, 則理同氣異; 觀萬物之異體 則氣猶相近.” (이이 7서 - 리통기국)
- (6) 정호, 『하남 정씨 유서』, “論性不論氣 不備; 論氣不論性 不明; 二之則不是.” (이이 7서.-기질지성)
- (7) 정호, 『하남 정씨 유서』 1, “形而上爲道, 形而下爲器. 須著如此說, 道亦器, 器亦道.” (이이 2서-리와 기의 ‘不相離 不相雜’)

이 두 사람이 드는 경전적 근거를 살펴보면, 성혼이 제시한 것들은 리발과

기발 둘이 가능하다는 호발설을 지지하는, 주희와 그 수제자 둘의 직접적 증거들이다. 반면 이이가 드는 것들은 기발리승의 한 길 뿐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받쳐주는 것이 없다. 그가 든 증거로 추론을 해도, 과연 그의 기일원론이 나올지는 명확하지 않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양자의 입장이 갈린다. 이이는 많은 구절들을 들지만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기발리승’ 하나의 길만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 끝에서 그는 ‘리통기국’ 이론을 만들고, 또 성현이 나와도 이것을 바꿀 수 없다는 맹세를 해야 했다.

이이가 그렇게 했어도 성혼은 끝까지 납득하지 않았다. 주희가 직접적으로 리발과 기발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걸 버리고 이이가 제조한 리통기국을 선택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논쟁은 접합점을 찾지 못 하고 평행선 달리기로 끝난다.

이 두 사람이 드는 전거로만 보자면, 주희는 리-기 이원론자이다. 이황-성혼의 입장과 같다. 반면 이이는 멀리는 공자부터 정호 정이 주희의 말들을 인용한다. 이것들은 다양해서 일괄해서 요약하기 쉽지 않다. (리통기국 이론은 이이가 만든 일괄 요약이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이는 주로 정호의 말을 인용한다. 정호는 일원론적 경향이고, 정이-주희는 이원론이다.

47 논쟁에서 기대승은 일원론, 이황은 이원론으로 간다. 기대승의 기발리승 한 길만의 인정, 이황의 리발-기발의 인정이 바로 그것이다. 이이는 기대승을 따르므로 정호의 일원론으로 가게 된다.

## 2) 47 논쟁의 연장선

이이와 성혼의 논쟁의 출발점은 47논변이다. 47 논쟁에서 이황과 기대승의 입장은 ‘이원론 대 일원론’이라 정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호발(互發)설 대 기발(氣發)설의 대립으로 말한다. 나는 원래 47 논쟁의 핵심을 리발(理發)의 인정 여부로 보았다. 얼핏 보면 ‘이원론대 일원론의 대립’으로 파악하는 것과, ‘리발을 인정할 것인가, 부정할 것인가’의 다름으로 보는 것은 서로 다른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는 같은 내용이다. 기발은 둘 다 인정

한다. 따라서 리발을 인정하면 리발-기발의 이원론이고, 부정하면 기발만 인정하는 일원론이다.

리와 기의 섞임(雜)과 떨어짐(離), 혹은 ‘일원론 대 이원론’이라 하면 대립의 초점과 날카로움이 모호해진다. 반면 ‘리발 인정이나, 부정이나’ 라고 하면, 대립과 논쟁의 심각성이 좀 더 부각된다.

기대승은 리발 부정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일원론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성·리·학이 정통인 시대에 ‘리발’ 부정을 핵심 이슈로 떠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일원론-이원론을 쟁점으로 삼는다. 이는 지적 성실성의 문제이다. (기대승을 이은 이이는 ‘묘합설’을 주장한다. 역시 일원론이다.)

성혼이 이황의 이원론을 지지한다면, 이이는 기대승의 일원론을 따른다. 주희가 『중용장구』 서문에서 인심과 도심을 각각 ‘몸의 기(생명력)’와 ‘이성의 명령’에 근원한다고 했다. 성혼이 이 구절을 들어서 이황의 이원론을 지지하자, 이이가 반박하면서 논쟁이 시작된다.

이이는 세 번째 답장까지 기대승의 주장과 논점을 거의 그대로 되풀이한다. 성혼이 『중용 장구』 서문이라는 새로운 근거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기대승의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4서 이후에는 이이는 자신의 이론을 만들어 간다.

성혼이 제시하는 강력한 증거 앞에서 이이는 주희-이황의 이원론을 뒤엎기 위해서 머리를 쥐어짜고, 자신의 기 일원론의 철학을 가다듬는다. 주희의 철학에 맞서는 제안을 한 것이다. (진정한 비판은 대안을 제시할 때 가능하다.)

### 3) 성혼과의 논쟁에서 이이의 이론적 발전 과정을 요약하자면

이이는 47 논쟁에서 기대승의 입장을 그대로 이어받는다. 성혼과 이이의 논쟁에서 처음부터 그 둘은 이황과 기대승의 입장을 가진다. 성혼의 경우 주희가 리발-기발의 이원론임을 확인한다. 그래서 호발설을 따른다. 이는 쉽게 이해가 된다.

반면 이이의 선택은 왜 이황이 아닌 기대승인가? 다음 두 가지 이유를 추

측해 볼 수 있다.

첫째, 서울 지역은 기 철학 중심이었다. 서경덕은 개성에서 살았고, 기대승 집안의 세거지는 일산 지역이며, 이이의 고향 울곡리도 그 부근이다. 그들은 서울 지역의 기 철학 그룹의 한 축을 이룬다.

둘째, 이이는 서인을 창시한 사람이다. (이준경 비난 상소문이 그 시작이다.) 동인은 이황이 구축한 성리학이 있었다. 서인의 이념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황과 맞선 기대승을 이이는 선택한다.

성혼이 주희의 『중용장구』 서문에서 리발-기발의 이원론의 강력한 증거를 제시한다. 새로운 것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이도 기대승의 입장에서 출발해서 새롭게 대답해야 했다. 주희-이황이 감정 욕망인 4단과 7정을 리와 기로 연결시킨다면, 주희의 『중용장구』 서문은 ‘도심-인심’을 리와 기로 연결시킨다.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감성(情)과 본성(性) 모두를 아우르는 포괄적 이론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서 이이는 이론적으로 전진하면서, 리통기국에 도달했다. 그 과정은 아래와 같다.

- (1) 마음: 기발리승(氣發理乘)의 한 길만 가능하다. -리발을 부정하고 기발만 인정하는 기대승의 일원론을 이어받는다. 일원화는 이이의 1-3서에 주로 나온다.
- (2) 사물: 승기지리(乘氣之理)-기를 탄 리; 기발리승의 형이상학적 설명 1단계, 인격화의 오류.
- (3) 리는 ‘무형 무위 불발’, 기는 ‘유형 유위 발출’; 형이상학화 2단계. 리는 단일적 존재이다. (‘理通’을 ‘리의 보편성’이라 번역하면 틀린다.) 리의 단일성 - 이는 서경덕의 ‘태허(太虛)’의 성격과 거의 같다. 따라서 이이는 리를 기(태허)로 만들고, 기를 리로 만들었다. 범주 착오이다.
- (4) 리통기국 - 리가 기에 의해서 국한된다. 이는 리와 기를 서로 맞바꾼 것이다. 리는 규정되는 것, 기는 규정하는 것이다. 이는 뒤집힌 형이상학이다. - 형이상학화 3단계

### 3. 기발리승과 일원화

주희의 성리학은 리와 기의 이원론이다. 주희는 리와 기로 물질적 자연과 사람의 마음 모두를 설명한다. 기는 주로 자연 설명을 위한 도구들이라면, 리는 주로 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원론이기 때문에 주희의 마음 설명은 모두 리와 기의 짝이 있다. 다음의 표처럼 대칭적이다. 이황은 주희의 이원론-대칭성을 그대로 받는다. 따라서 리발과 기발의 이원론을 주장하게 된다.

	심	성(性)	정情	마음	마음	수 양	
리理	성性	본연지성	4단	도심道心	미발未發	거경居敬	존심存心, 양성養性
기氣	정情	기질지성	7정	인심人心	이발已發	궁리窮理	격물치지格物致知

이원론을 반박하는 기대승과 이이의 전략은 주희의 이원론적 짝들을 모두 한 줄기(일원론)로 만드는 것이다. 이이의 일원화의 전략은 다음과 같다.

- (1) 포함시킴; 본연지성은 기질지성의, 4단은 7정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한 줄기이다.
- (2) 시간적 연속; 인심과 도심은 계속 교대된다. (인심도심 중시설) 따라서 한 줄기이다.  
\* 또한 성심정의(性心情意)는 한 길(一途)이다.
- (3) 명목상 긍정, 실질적 부정, 비존재화; 리는 무형 무위 불발(不發)이다. 사실상 비존재이다. 따라서 기 일원론이 된다.
- (4) 부정; 리발(理發)을 부정하고, 기발(氣發)만 인정한다. 기발리승의 한 길이다.
- (5) 첨가; 이이의 수양론은 ‘궁리 거경 역행(力行)’의 셋이다. 따라서 이원론이 무너진다.

이 모든 것은 일원론의 길이고, 이원론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47 논쟁에서 이황은 이원론, 기대승은 일원론이다. 이이는 기대승의 노선을 고스란히 따른다.

일원화 전략의 핵심은 ‘리와 기의 규정’을 뒤바꾸는 것이다.



### 4. 기를 탄 리(乘氣之理)

1) 이이는 기발리승(氣發理乘)에서 승기지리(乘氣之理; 기를 탄 리)로 나간다. 이는 그의 ‘리통기국’ 이론의 첫 걸음이 된다. ‘기를 탄 리’라는 것은 ‘기가 드러나면 리가 올라탄다’는 것을 확장한 것이다. ‘기발리승(氣發理乘)’은 사람의 마음에서 감성(情)이 드러나는 기제를 설명한 것이다. 이를 현상 사물 전체에 확장한 것이 ‘승기지리(乘氣之理)’이다.

사람의 마음에서 감성(감정 + 욕망)이 드러나는 기제는 ‘氣發理乘’ 하나 뿐이다. ‘理發氣隨’는 불가능하다. 왜 그런가? 리가 드러나려면 기를 타야 한다. 리는 형이상이다. 현실 세계는 형이하의 기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리는 기를 타야 현실에 드러난다. - 이것이 이이의 생각이다.

리에는 ‘본연의 리’(本然之理)가 있고, ‘흘러가는 리’(流行之理)가 있다.

본연의 리 → (리가 기를 탐) → 흘러가는 리

이것이 바로 이이 이론의 핵심이다. 이것을 좀 더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본연의 리 →	(리가 기를 탐)	→ 흘러가는 리(流行之理) 기를 탄 리(乘氣之理)	→ 현상 사물
리의 하나 →		→ 나뉘어 다름(分之殊)	
순수하게 선함 →		→ 선과 악이 있다.	
淸淨至貴之物		及 汚穢至賤之處	

이 설명은 일종의 사물 발생론이다. ‘본래 그러한’ ‘하나의 리’(本然之理, 理一)가 있다. 그 리가 기를 타고 흘러가면, 만 가지로 나뉘어 달라진다. 들쭉날쭉 어그러져(參差不齊), 깨끗하고 지극히 귀한 것과 더럽고 지극히 천한 것이 달라진다. 달라진 만 가지 것에 그렇게 ‘달라진 리’가 있다. 나뉘어 달라지니(分之殊), 깨끗하고 귀한 것에도 리가 있고, 더럽고 천한 것에도 리가 있다. 그에 따라 리에도 선과 악이 있게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상당히 혼란스럽다. 위의 도식은 ‘투입 → 산출’로 되어 있다. 산출된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물들이다. 문제는 투입이다. 투입은 ① ‘본연의 리’가 있고, ② ‘리가 기를 탐’ 그리고 ③ ‘리가 기에

의해서 국한됨'의 셋이다. 이 셋은 다 문제가 있다.

- ① 과연 본연의 리가 있는가? 이이는 구체적인 사물의 발생을 말한다. 따라서 '본연의 리'는 추상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세계 어디엔가에 있어야 한다. '본연의 리'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 있는 곳을 댈 수 없다.  
게다가 본연의 리는 형이상자이다. 이 세계는 형이하자이다. 형이상과 형이하는 모순이다. 모순된 것들이 서로 관여할 수 있는가?
- ② 리가 기를 탄다. 이 역시 구체적인 사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따라서 우주 어디에선가 이 과정이 일어나야 한다. 대체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확인할 수 없다.
- ③ 리가 기에 의해서 국한된다. - 기의 국한으로 사물이 '깨끗함-더러움, 귀함-천함'으로 다르면, 리도 '선-악'으로 갈라진다. 이는 범주 착오이다. 사물이 발생함은 물질적 과정이다. 반면 '깨끗함-더러움'은 주관적인 판단이다. '귀함-천함'은 사회적 신분 차이이다. 사물의 발생을 이처럼 주관적 가치로 판단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사물 발생 자체에 그런 판단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리는 본래 선한 것이다. 어떻게 현실화되었다고 선과 악이 있을 수 있는가? 이는 성리학에 대한 무지의 소산일 뿐이다.

투입 과정의 셋은 실제 자연 세계에는 없다. 단지 이이의 문학적 상상력 속에서만 존재한다. 문학적 창작이라 보면, 뭐 기가 리와 함께 그런 우주적 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2) 내가 볼 때, 이이의 '기를 탄 리' 이론은 장재-서경덕의 '태허 ⇄ 객형' 이론의 서투른 변안에 불과하다.<sup>3)</sup> '태허(太虛)'는 '크게 텅 빈' 공간에 가득 찬 희박하고 균질한 기이다. 그것이 '틀이 스스로 그러함'(機自爾)에 의해서 운동을 하고, 치우치고, 모여 뭉쳐서 '객형(客形; 손님 형체)'을 만든다. 형체는 손님처럼 머물다가 죽어서 흩어져서 다시 태허로 돌아간다. 태허와

3) 이이는 서경덕이 "리를 기로 오인했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이 자신이 기(태허)를 리로 오인했다.

객형의 순환이 바로 우주의 변화의 핵심이다.

이 과정은 물리적 현실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하늘과 땅 사이의 텅빈 허공에서 사물들이 생겨난다. 태허와 객형은 늘 존재한다. 그것을 ‘태허 ↔ 객형’의 순환으로 정리했다. 이는 기의 양태 변화-순환이다.<sup>4)</sup>

3) 이이는 기의 ‘태허 ↔ 객형’의 순환에 리를 첨가한다. 태허에 리가 함께 존재하고, 태허의 운동에 따라 리도 운동해서 객형으로 들어간다. 객형은 ‘기+리’이다. 만약 이이가 이렇게 설명했다면, 명확하고 논리적이었을 것이다.

문제는 이이가 태허를 빼고 설명한다는 점이다. ‘기를 탄 리’, ‘기가 발하면 리가 올라탄다’라는 말은 태허를 배제한 것이다.

객형의 발생은 태허의 치우침(뭉침, 국한됨)에서 비롯된다. 태허의 희박-균질과 객형의 뭉침-불균질은 논리적으로 반대된다. 그래서 변동이 시작된다. (1세대 기론자들의 이론이다.)

‘리가 기를 탐’, ‘기가 발하면, 리가 올라탐’이라는 말은 사물 발생의 논리적 물리적 과정을 지워버린다. 이를 신화적 사유 혹은 문학적 상상력이 대신한다. 이이는 철학자라기보다는 문학자에 가깝다. 철학적 논리적 사유 대신 문학적 상상력이 대부분이다.

4) 왜 이이는 ‘태허 ↔ 객형’의 순환에서 ‘태허’를 지우려 하는가? 태허를 지운 문학적 상상으로 나가는가? 태허를 리로 대체하려 하기 때문이다. ‘무형(無形) 무위(無爲) 불발(不發)’이라는 리의 성격은 그대로 태허의 성격이다. 개별 사물(客形)의 과정에서 치우치는 것도 태허이다. 개별 사물이 생겨나지만, 태허는 여전히 존재한다. 태허 안에서 객형의 생성 소멸이다.

이는 그런 태허의 성격을 그대로 리에다 적용한다. 리는 태허처럼 아무런 규정도 없다.(무규정-무형 무위) 개별 사물의 발생 과정에서 치우친다. 개별 사물 안의 리는 치우친-국한된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본연의 리는 존재한다. 물론 개별 사물이 아닌, 따로 어딘가에 있다.

5) ‘理通氣局’이라는 말도 바로 그런 것이다. 원래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리와 기는 형이상-형이하로 존재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理通理局, 氣通氣

4) 손영식, 「장재와 서경덕의 우주론-개천설에서 혼천설로」, 철학사상 44집, 2012년.

局’이고 ‘理一理分殊’, ‘氣一氣分殊’이어야 한다. 이는 리 혹은 기가 ‘하나 → 여럿’으로 분화됨을 말한다. 분화이기 때문에, 리는 리, 기는 기라는 같은 범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이는 둘을 섞어서 ‘理通氣局’ ‘理一氣分殊’라고 한다. - 이것은 논리적으로 부정합이다. 리와 기는 각각 형이상-형이하자로, 존재 양식 자체가 다르다. 그런데 어떻게 형이하자인 기가 형이상자인 리를 국한시킬 수 있는가?

태허 ⇄ 객형의 순환 과정에서 태허를 ‘본연의 리’로 바꾸었기에, 이이는 ‘리통기국’이라 말한다. 본연의 리가 기의 운동 속에서 국한된다. 이것이 사물의 발생이다.

6) 이런 식의 이론은 리의 성격 자체를 바꾼다. 본연의 리는 무규정자이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투입(input)에 해당되는 ‘리가 기에 올라탐’의 과정이란 실제로는 없고, 산출(output)인 현상 사물만 존재한다. 따라서 그의 이론에서 리는 ‘사물 속에 국한된 리’만 있다.

1세대 기론자(장재 서경덕)가 태허를 주로 한다면, 2세대(나흠순 이이)는 객형을 중심으로 한다. 1세대가 엄밀한 자연학에 근거한다면, 2세대는 어정쩡한 경험론으로 간다.

1세대는 기로서 자연의 변화를 설명하려 했다. 반면 2세대 이이는 굳이 객형에 ‘리’를 집어넣으려 한다. 기의 국한으로 객형이 생기고, 이에 따라 객형 속의 리도 국한된다. 개별 사물(객형)으로 국한된 리는 사실상 그 사물의 특성을 의미한다. 특수성 그 자체이며, 보편성은 전혀 없다.

깨끗하고 귀한 것에도 리가 있고, 더럽고 천한 것에도 리가 있다. 물이 아래로 흘러감에도 리가 있고, 물이 막혀 위로 튀어오름도 리가 있다. 천하가 무도해서 덕이 작은 포악한 자가 덕이 큰 어진 자를 부러도, 그것에도 리가 있다. “천하에 어찌 리 바깥에 기가 있겠는가?”

이렇게 되면, 사실상 리라는 것은 윤리 규범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개별 사물이나 일의 특성 성격이 된다. 특성이 없는 사물은 없다. - 이는 주희의 리 개념 규정과는 반대가 된다.

주희 성리학에서 리의 총체는 태극이다. 태극은 “하늘과 땅 사이의 사람

과 사물의 모든 선함(萬善)과 지극히 좋음(至好)의 이름(表德)이다.(『주자 어류』 94-21) 리는 사물과 일의 표준이고 모범형이고 보편자이다. 그런데 이이는 리를 사물들의 특성이라 한다.

리는 가능태이다. 미발의 본성에 가능성으로 주어진다.(性卽理) 따라서 사람이 그 리를 현실화시킬 노력을 한다. 인격 수양이 그것이다. 반면 이이의 리는 개별 사물에 있는 특성이고 현실태이다. 이미 현실화된 것이기 때문에, 인격 수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희의 경우, 리는 가능태이고, 음양 오행은 현실태이다. 따라서 리는 사람의 윤리 도덕에, 음양 오행은 현상 세계의 설명에 사용된다.)

7) 이이의 ‘기를 탄 리’, 혹은 ‘리통기국’ 이론은 사실상 리가 필요 없다. 장재와 서경덕의 ‘태허 ⇄ 객형’의 순환으로도 충분하다. 태허가 모여 굳은 것이 객형이다. 객형에는 객형의 특수성-필연성이 생겨난다. 이 특수성이 굳이 리일 필요가 없다. 이 특수성은 성리학의 리 개념과는 정반대이다. 기만으로 ‘태허 ⇄ 객형’의 순환을 설명하면, 논리적으로 정합적이다.

개별 사물에는 어떤 모범형(리, 이테아)도 없다. 단지 그 사물의 개별적 특성-속성만 있다. 그 속성을 감각 지각으로 지각한다. 지각된 내용을 귀납해서 보편적 지식을 구성한다. 이것은 인식론적으로는 경험론이 된다.

그런데도 이이는 굳이 리를 집어 넣어서 ‘리통기국’이라 한다. 그 결과 인식론적으로 보자면, 감각에 의존하는 경험론도 아니고, 이성적 사변에 근거하는 합리론도 아닌 어정쩡한 것이 된다. 요컨대 지적인 성실성이 문제이다. 이이는 리통기국의 리가 과연 주희의 성리학에서 리와 같다고 생각한 것인가?

## 5. 리는 무형(無形) 무위(無爲) 불발(不發) → 비존재

1) ‘기를 탄 리’(乘氣之理) 이론이 성립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리를 재료-질료로 만들기이다. 리가 재료이고, 기가 그것을 규정한다. 그래서 이이는 ‘리=무형 무위 불발’이라 한다. 리는 무규정자이고, 기가 그것을 규정

한다.

“리는 규정자이고, 기는 규정되는 것이다.” – 이는 형이상학의 기본 공식이고, 주희의 성리학도 그렇다. 그런데 이이는 반대로 간다. 리는 피규정자, 기는 규정자이다. 왜 그런가? ‘기를 탄 리’, ‘기에 의해서 국한되는 리’라는 이론 때문이다.

기에 의해서 국한된 리 – 이를 위해서는 기는 능동, 리는 수동; 기는 규정자, 리는 피규정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이는 말한다.

리와 기는 원래 서로 떨어지지 않아서 마치 하나인 것 같으나, 서로 다른 이유는 리는 형체가 없고, 기는 형체가 있다.

리는 함이 없고, 기는 함이 있다.

형체가 없고 함이 없으나, ‘형체가 있고 함이 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은 리이다.

형체가 있고 함이 있으나, ‘형체가 없고 함이 없음’의 그릇이 되는 것은 기이다.

리는 형체가 없고, 기는 형체가 있기 때문에, ‘리는 통하고 기는 국한시킨다’.

리는 함이 없고, 기는 함이 있기 때문에, ‘기가 드러나면 리가 올라탄다’.

理氣元不相離，似是一物，而其所以異者，

理無形也，氣有形也，

理無爲也，氣有爲也。

無形無爲而爲有形有爲之主者 理也，

有形有爲而爲無形無爲之器者 氣也。

理無形而氣有形，故理通而氣局，

理無爲而氣有爲，故氣發而理乘。(이이 6서)

리는 무형 무위이고, 불발(不發)한다. 이이는 리발(理發)을 부정한다.

그렇다면 형체도 없고, 함도 없고, 드러남도 없는 것은 무엇인가? 사실상 비존재이다. 그런 것은 있어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방법이 없다. 이이에 게 리는 비존재이다. 결국 기만 남게 되고, 기 일원론이 된다. 기대승-이이는 일원론자이다. 기대승은 단지 기발리승의 하나의 길만 인정했다면, 이이는 대놓고 리의 존재를 부정하고, 기 일원론으로 간다.

리가 무형 무위 불발이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리가 피규정자(재료)이기 때문이다. ‘氣發理乘，乘氣之理，理通氣局’ 이론에 따르면, 기가 리를 국한시키고, 드러내준다. 이렇기 위해서는 기는 규정자, 리는 피규정자가 되어야 한다.

2) 규정자는 유형 위 발출해야 하고, 피규정자는 무형 무위 불발이어야 한다. 형이상학의 일반적인 공식에 따르면 그렇다. 플라톤(Platon)은 이데아를 규정자, 질료(재료)를 피규정자로 본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는 재료는 아무런 규정도 없어야 한다.(apeiron) 만약 약간의 규정이라도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것은 한정된다.(흙 나무 쇠 등의 재료가 그렇다.)

헤겔(Hegel)은 순수 존재는 무(無)라고 한다. 무규정이다. 존재와 무라는 모순이 변화를 만든다. 정반합의 변증법이다. 순수 존재의 무규정성이 변화의 근거이다.

장재(張載)는 이 세상 모든 사물을 만드는 재료를 태허(太虛)라고 한다. 태허는 말 그대로 ‘크게 텅빔’이다. 아무런 규정도 없다. 따라서 모든 사물을 만드는 재료가 될 수 있다.

이이도 규정자-피규정자 이론으로 간다. 문제는 성리학의 공리와 상식을 뒤엎는다는 점이다. 주희의 이론에서 리는 보편자이고 규정자이다. 기는 재료이고 피규정자이다. 이이는 이를 뒤집어서 기는 규정자이고, 리는 피규정자라고 한다. 그의 설명을 따라가 보면, 그가 말하는 리는 사실상 장재-서경덕의 ‘태허’와 같다. 리통기국 등의 이론도 ‘태허 ↔ 객형’ 이론으로 변안하면 합리성 현실성을 가질 수 있다.

3) 이이가 리를 ‘무형 무위 불발’이라 하는 것은 ‘形而上者’라는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다. 정이-주희의 이론에서 ‘形而上-形而下’란 보편자와 개별자의 구별이다. ‘形(형체)’은 개별 사물을 의미한다. 장재의 ‘객형’이다. 사물은 특정한 시간-공간 속에 있다. 따라서 ‘형체를 초월한’(形而上)은 특정 시공간을 넘는 것, 즉 모든 시공간에 존재함이다. ‘형체 안에 있는’(形而下)는 특정한 시공간에 있음이다. 개별 사물이다. 리는 모든 시공간에 존재하는 보편자이고 모범형이다. 따라서 특정 시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 적용된다. 이것이 형이상-형이하의 개념이다.

이이는 주희의 다음 구절을 ‘리=무형 무위 불발’로 바꾼다.

기는 영겨서 맺히고 지어서 만들 수 있다. 리는 도리어 감정·의지가 없고, 헤아림이 없고, 지어서 만들음이 없다. 다만 이 기가 영겨서 맺힌 곳에 리가 곧 그 가운데에 있다. “氣則能凝結造作, 理卻無情意, 無計度, 無造作. 只此氣凝聚處, 理便在其中.”(『주자어류』 1-13)

여기에서 주희가 하고 싶은 말은 범신론과 유일신론의 구별이다. 유일신은 절대자이고 인격신이다. 감정 이성 행위가 있다. 기독교의 신이 그렇다. 반면 리는 감성(情意)도 이성(計度)도 행위(造作)도 없다. 리는 인격신이 아니다. 따라서 현상 세계에 대해서 인격신처럼 관여하지 않는다. 리는 단지 모든 시공간에 존재하는 모범형이다. 기가 맺혀 만들어진 사물 속에 존재한다. 사물 속에 존재하는 신이 바로 범신론의 신이다.

이이의 ‘리=무형 무위 불발’은 주희의 형이상-형이하의 논의와는 다른 맥락이 된다. 기가 리를 국한시켜서 현상 사물(客形)을 만든다. 이는 우주 발생론이고, 무엇을 제작하는 문제이다. 이는 장재-서경덕의 노선이다. (그리스의 경우 우주의 근원적인 재료를 따지면서 4원소를 거쳐서 원자론까지 간 자연 철학자들의 길이다.)

## 6. 리통기국(理通氣局)

### 1) ‘理通氣局’의 해석 문제

기대승의 ‘氣發理乘’ 이론에서 출발해서 이이는 ‘乘氣之理’를 거쳐서 ‘理通氣局’ 이론에 도착한다. 기대승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만 논했다면, 이이는 세계 전체로 확장한다. 그의 이론의 정점인 ‘理通氣局’은 우선 해석부터 문제가 된다.

(1) 리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 → 리와 기는 서로 상반된다.

(2) 리는 통하고, 기가 국한시킨다. → 리의 통함을 기가 국한시킨다.

일반적으로 (1)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이의 주장을 보면 (2)로 해석해야 마땅하다.

이이는 그 말에 두 가지 의미를 다 싣는다. 둘 가운데 (2)가 더 중요하다. 단일체인 리를 기가 국한시킬 때 현상 사물이 이루어진다. 이이의 철학에서는 바로 이 뜻이 중요하다.

문제는 이이가 자꾸 (1)처럼 토를 단다는 것이다. 리가 기를 타면(乘氣之



理), 리는 기에 의해서 국한되어, 개별 사물의 리가 된다. **그렇지만 국한된 개별 사물의 기 안에 있는 리는 의연히 리통의 리였다.** - 이게 바로 토달기이다. (그럼 대체 그 리는 국한된건가? 통하는건가?)

이이는 보통 (1) “리는 통함, 기는 국한됨”이라 한다. 이것만 보면 성리학의 리와 기의 이원론(대칭성)에 맞는 것 같다. 그러나 리는 현상으로 드러나려면, 기에 올라타야 한다. 기에 올라타서 개별 사물 속에 들어가면, 리가 국한된다. 그런데도 국한된 리는 보편적인 리(理通)와 같다.

국한된 리가 보편적 리와 같다.-국한과 보편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모순을 가지고 말할 수는 없다. 리통기국은 ‘**리+기=사물**’이라는 **리기 포함설**이다. 실제로는 개별 사물 속에 든 ‘국한된 리’만 있다. 보편적 리는 사실상 없다. 팔호쳐진다.

개별 사물 속에 국한된 리의 문제를 따져보자.

## 2) 리와 기를 서로 맞바꿈

**(1) 리는 통하는데, 기가 그것을 국한시킨다.** - 이것이 리통기국 이론이다. 이는 형이상학 일반 (즉 주희의 성리학이나, 플라톤의 이데아론 등 중국과 서양의 대표적인 형이상학)에서 보자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정반대로 규정하는 것이다.

	주희, 플라톤 등			이이	
리(理)	보편성	규정자-원리 형상	eidos	피규정자-국한됨	물; 공기
기(氣)	특수성	피규정자-재료	hyle	규정자-국한시킴	그릇; 병

이이의 리통기국은 일반적인 형이상학의 기본 원칙을 뒤집어 말한 것이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는 이처럼 거꾸로 말하게 되는가? ‘**리(理)**’의 **개념 규정이 빌미가 된다.**

성리학에서 일반적으로 리를 보편자로 본다. 보편성이란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즉 ‘아버지의 리’, ‘책상의 이데아’는 ‘아버지’ 혹은 ‘책상’인 모든 사물들에 ‘**두루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리’라는 규정 내용이 해

당 사물 개체들 모두에 두루 담김 - 이것이 보편성이다.

반면 이이는 리의 보편성을 무규정자, 단일성으로 이해한다. 그는 6서에서 ‘리통기국’을 설명하면서, “리는 형체가 없고, 함이 없다.” “리통(理通)이 무엇인가? 리는 근본과 말단이 없고, 앞과 뒤가 없다” 라고 한다. 요컨대 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단일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리와 기를 읊음」(理氣詠)에서 ‘리’를 물과 공기(공간)에 비유한다.(5서) 물이나 공기나 균질한 것이고, 그릇과 병에 담기는 것이다. 담기면서 그 형체가 정해진다.

(2) 이런 식의 ‘리’의 이해는 성리학의 ‘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리’ 개념은 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리기영」의 주석에서 그가 밝혔듯이 ‘빈 병의 이야기’는 불교에서 나왔다.(空瓶之說, 出於釋氏) 결국 그의 리 개념은 불교에서 온 것이다.

‘리’를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최초로 쓴 곳은 화엄종이다. 화엄은 ‘리와 事’로 법계를 4개로 구분한다. ‘事’는 개별 사물이다. ‘理’는 그 사물들의 ‘사이-공간-관계’이다. (리는 본래 ‘결’을 뜻한다. 사물들의 사이-공간은 ‘결’과 같다.) 事는 제각기 다르지만, 理는 균질한 하나이다.

명종 때의 승려였던 보우는 도교 불교의 ‘寂滅 眞空’과 유가의 ‘仁義 忠 恕’를 체용 관계로 본다. 이 맥락에서 그는 ‘하늘의 *하나*와 사람의 *바름*’(一正)의 동일성을 주장한다.<sup>5)</sup> 보우의 본체 개념은 이이의 리 개념과 상통한다.<sup>6)</sup> 이이가 금강산에서 결코 헛되게 세월을 보내지는 않은 것 같다.<sup>7)</sup>

이이의 리 개념의 또 하나의 근원은 장재-서경덕의 ‘太虛’ 개념이다. 태허는 크게 텅 빈 것이다. 아무런 규정도 없는 단일자이다. 그러면서 모든 개별 사물(客形)을 이루는 재료이다. 이이의 리도 ‘개별 사물을 이루는 재료’이다.

- 5) 「普雨의 불교사상과 佛·儒融合調和論」, 이봉춘, 2009가을 제50회 전국불교학술대회 논문자료집. 보우가 理通事局이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문헌 근거를 찾을 수 없다.
- 6) 정도전은 『불씨잡변』 「儒釋同異之辨」에서 유가는 ‘虛而有 寂而感’인데 비해, 불교는 ‘虛而無, 寂而滅’이라 한다. ‘무형 무위 불발’이라는 이이의 리 개념은 불교의 ‘虛而無, 寂而滅’과 사실상 같다.
- 7) 이이는 『노자』에 주석을 썼다. (『순언醇言』) 그의 ‘리’ 개념은 노자의 도체(道體)와 비슷한 점이 있다. 그의 이론에서 불교나 도가의 영향에 비하면, 성리학의 요소가 적다.

(3) 기의 특성을 ‘국한시킴’으로 보는 것 - 이 역시 일반적 형이상학을 뒤엎는 것이다. 플라톤의 경우, 무규정자(apeiron)인 질료(hyle)를 규정자(peras)인 형상(eidos)이 규정한다. 주희의 성리학에서는 ‘아버지, 신하’ 등의 사물을 규정하는 것이 ‘리’이다.

개별 사물은 국한된 결과이다. 그것은 이데어나 리가 질료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반면 이이는 기가 리를 국한시킨 것이라 한다. 국한시키려면 기 안에 ‘규정성’이 있어야 한다. 국한시켰다면, 국한시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기는 재료이다. 재료는 규정 내용이 없다. 논리적으로 보면, 규정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재료이다. (흙, 돌, 나무, 쇠 같은 재료를 보라.)

(4) 이이는 주희의 리와 기를 서로 맞바꾼다. - 그는 리의 ‘보편성’을 무규정으로 해석한다. 리는 무규정의 단일자이다. 리를 ‘물, 공기’에, 기를 ‘그릇, 병’에 비유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는 리의 역할을 기에 부여하고, 기의 역할을 리에 넣는다. 이는 형이상학적 무지의 소산이다.

물론 좋게 보자면, 무식과 오해는 창조의 어머니이다. 이이의 ‘기가 리를 국한시켜서 개별 사물이 됨(理通氣局)’ - 이 길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경험론 철학이 될 수 있다. 리는 개별 사물의 특성이고, 그것을 감각으로 지각한다.

그러나 이이의 후에 가운데 누구도 발전의 길로 가지 않았다. 조선시대에는 사대부가 정치가이면서 학자였다. 그들은 철학을 학문으로서 하지 않고, 정치로서 했다. 따라서 진영 논리에 스스로 갇혀서 단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했다.

이이의 철학은 그것에서 벗어나서 멀리 전진할 때 경험론이라는 훌륭한 이론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이의 이론 자체로는 품질이 너무 떨어진다.

### 3) 두 세대의 기론자 - 사물의 발상. 상식

(1) 기론자는 1세대와 2세대로 구분된다.

1세대	태허와 객형의 순환 이론	⇔	우주의 시초(太虛)에 주목	장재, 서경덕
2세대	리와 기의 一物, 妙合=개별 사물	+	현재의 사물(客形) 중점	나흠순, 이이

기론자는 기를 중심으로 물질적으로 세계를 설명하려 한다.

1세대 기론자들은 기를 가지고, 우주의 시작, 즉 우주 발생 순간을 설명하려 한다. 이들은 지적인 금욕주의<sup>8)</sup>를 가지기 때문에 *기로써만 설명*하려 한다. 따라서 사실상 리는 ‘태허 ⇄ 객형’ 모델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태허에서 객형으로 나아가면서, 서경덕은 ‘틀이 스스로 그러함’(機自爾)이라 말한다. 기만으로 태허를 설명할 수 있지만, 객형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적인 금욕주의를 포기하고 리를 도입한다. ‘리의 때’(理之時)가 바로 그것이다.

이들이 우주의 시초에는 기만 존재한다고 하는 것과 달리 주희의 성리학은 ‘리와 기’ 둘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설명 대상이 1세대 기론자는 물질적 자연인 반면, 주희는 마음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이다.

2세대 기론자들은 ‘리+기’에 집중한다. 나흠순의 리기 일물(一物)설, 이이의 리기 묘합(妙合)설이 그것이다. 리와 기의 동시 존재는, ‘리+기=객형(客形)’, 즉 현상 사물이다. 이들은 현재 존재하는 개별 사물들을 사유의 준거들로 삼는다. 1세대가 태허에서 객형으로 나가려 했다면, 2세대는 객형에 머물고, 결코 태허로 거슬러가지는 않는다.

(2) 문제는 지적인 엄밀성이다. 2세대는 객형의 측면에서, 이미 ‘리+기’라고 본다. 1세대가 고민했던 리는 아무 근거없이 입장했다. 무혈 입성이다. 자연 설명에 리를 도입할 수 있는가?

(3) 리나 음양 오행이나 다 패턴(무늬)이다. 그러나 **음양 오행은 현실태인 반면, 리는 가능태(잠재태, 잠세태)**이다. 자연은 현실태이다. 『주자어류』를 보면 자연 설명은 늘 음양과 오행으로 한다. 리는 없다. 반면 리는 사람의 마음에 본성으로 존재한다(性卽理).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리는 마음 수양의 대상이다.

(4) **리는 형이상자이고, 기는 형이하자이다. 서로 모순이다.** 논리적으로 보자면 둘은 동시에 함께 존재할 수 없다. 모순은 현상 세계가 아니라 사람

8) 최소한의 전제에서 최대한을 설명하려 하는 태도이다. 설명이 안 된다고 함부로 가정을 보태지 않는다. 장재는 기로 자연을 설명하려 한다. 반면 이이는 슬그머니 리를 집어넣는다.

의 마음에 존재할 수 있다.

주희의 성리학 - “마음 = 리 + 기, 사물 = 기”

2세대 기론자 - “마음 = 기, 사물 = 리 + 기”

리가 사물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리는 가능태가 아닌 현실태가 된다. 리는 개별 사물의 특성이 된다. 그것은 감각으로 지각된다. 이는 경험론으로 나가야 마땅하다. 경험론은 개별적인 현상 사물에 근거한다.

(5) 서경덕은 리의 도입을 고심하면서 ‘기자이機自爾’라 한다. 이이는 陰靜陽動의 ‘機自爾’라는 말을 쓴다. 원래 ‘기자이’는 법칙이 아니다. 이론 체계의 결함을 지적하는 말이다. 그러나 이이는 ‘기자이’가 법칙인양 생각한다.

역사는 신화 → 철학 → 과학으로 나간다. 1세대는 철학 → 과학으로 나가려는 몸부림을 친다. 그러나 이이는 철학 → 신화로 거슬러간다. (서양 근대 자연과학은 데카르트의 실체 중 하나인 ‘물질’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실체’는 그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은 오직 물질만으로 설명해야 한다. 하느님이나 이데아, 리같은 것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 금욕주의가 서양 근대 자연과학의 비약적 상승을 이루게 한다.)

(6) 이이는 “**리와 기가 妙습한다**”고 한다. ‘妙’는 ‘묘하다’,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는 모순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정확하게는 ‘얼버무리’) 방법이다. 이이의 논증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순이 깃들여 있다.

형식 논리학에 의하면, 모순은 오류의 으뜸이다. 결코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이는 변증법으로 나가지도 않으면서, 모순된 표현을 남발한다. 오류의 연속을 ‘妙’라는 말로 포장하여 비판을 잠재운다.

(7) 철학에서 ‘妙’라는 말을 제거하고 설명할 때 철학의 발전이 있다. 예컨대 주돈이 소용 → 정호 정이 주희가 그것이다. 이론 체계에서 모순의 제거는 후대의 학자들의 임무이다. 그러나 이이의 후예들은 결코 그런 모순 제거나 탈신비화 작업을 하지 않는다. 이는 정치적 진영 논리 때문이기도 하고, 또 중국에 전통적인 述而不作的 훈고학적 이성 때문이기도 하다.

## 7. 심시기(心是氣) - 기발리(氣發理), 성발위정(性發爲情)

1) 이이의 주장은 “기가 리를 드러낸다”(氣發理)로 요약된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보자면, 수양론은 기에 집중된다. 그는 장재의 ‘기질 변화론’을 그대로 따른다. 수양이란 기로 하여금 리를 더 많이 드러내게 하도록 기질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논리적으로 보자면 리는 객관적인 것이 된다. 기가 리를 드러낸다면, 기는 주관, 리는 객관이 되어야 한다. 주관의 바깥에 있는 것, 객관인 리는 무엇인가? 사회적 관습과 규범인 윤리 도덕이다. 기질을 변화시켜서, 관습과 규범을 익히라 - 이는 순자의 성악설과 같다.

주희의 이론은 ‘性卽理, 心統性情’이다. “본성은 리이다. 마음은 본성과 감성을 통괄한다.” 따라서 본성과 리는 마음의 일부를 이룬다. 마음은 자아이고 주관이다. 따라서 주희 성리학에서 리는 자아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수양론은 가능태로 주어진 본성의 리를 현실태로 만드는 것에 집중된다. 그의 거경 궁리 이론의 요점이 그것이다.

2) 이이는 “기가 드러나면 리가 올라탄다”(氣發理乘), “기가 리를 드러낸다”(氣發理), 따라서 마음은 기이다(心是氣)라고 하여, 마음에서 리를 배제한다.

그는 “본성은 리이다”(性卽理)라고 하지만, 그것은 본연지성이다. 본연지성은 기질 속에 떨어진 리 부분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기질지성 뿐이다.

본연의 리 → (리가 기를 타다) → 흘러가는 리  
→ 기를 탄 리(乘氣之理)

이 과정에서 ‘본연의 리’가 비존재가 되듯이, 본연지성은 기질지성에 떨어진 리가 되면서 비존재가 된다. 기질이 드러내 주지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것이다.

이이에게 “마음은 기”(心是氣)이고, 본성은 기질지성이다. 그렇다면 기인 마음이 드러내 주는 리는 무엇인가? 기가 주관이므로, 리는 객관이 된다. 객관인 리는 논리적으로 보자면 예(禮)라고 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사회에

관습으로 굳어진 윤리적 규범이다.<sup>9)</sup> 예는 사회의 규범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것을 실천하면 드러나고, 실천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이는 공자의 “사람이 도를 넓히지, 도가 사람을 넓히지 않는다”는 말을 인용한다.(이이 6서) 여기에서 도는 예(禮)를 의미한다.

만약 ‘기가 드러나서 리가 올라타는’ 하나의 길이 아니고, 리 또한 따로 작용함이 있다면, ‘리는 함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공자가 무엇 때문에 “사람이 도를 넓힐 수 있지,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겠는가?

若非氣發理乘一途，而理亦別有作用，則不可謂理無爲也，

孔子何以曰，人能弘道，非道弘人乎？

리는 작용함이 없고, 스스로 드러나지 않는다. 기가 드러내 줄 뿐이다. 그 증거로 이이는 공자의 말을 든 것이다. 이처럼 스스로 드러나지 못 하고, 개인의 마음이 드러내 주어야 하는 것은 예이다.

3) “마음은 기이다.” 리는 예이다. 기가 리를 드러내준다. 마음이 예를 실천한다. - 이는 순자의 성악설과 논리적으로 똑같다. 사람의 마음은 식욕과 성욕이다. 감정과 욕망은 기에 속한다. 성리학의 용어로 번역하자면, 순자의 이론은 마음을 기로 본 것이다.

이이는 “본성이 드러나서 감성이 된다”(性發爲情)고 한다. 이이에게 감성은喜怒哀懼愛惡欲의 7정이고, 4단은 그것에 포함된다. 순자의 마음 이론과 같다.

순자는 마음에 스스로를 제어할 규정(규범)이 없다고 본다. 마음은 단지 감정 욕망 뿐이다. 따라서 규정-규범을 바깥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익힘을 쌓음’(積習) 이론이 그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위대한 것은 예를 익히고 쌓아서, 욕망의 마음을 인격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성악설의 극단인 법가 한비자는 이런 학습과 인격 형성을 부정한다. 사람은 24시간 감시하면서 상별로 제어할 대상이다.)

이이의 기발리승 일도설은 순자의 본성과 예 이론과 논리적으로 일치한다. 리를 괄호치고 기만 살리는 그의 이론은 논리적으로 순자의 성악설로 갈 수 밖에 없다.

9) 『예기』에 “예(禮)는 리(理)이다” 라고 한다. 이이는 순자의 성악설로 간다.

## 8. 이이의 서술 방법의 특징

이이의 글을 보면 특징적인 서술 방법이 있다. 이는 그의 사유의 방법이기도 하다.

### 1) 논리학이 없고, 수사학만 있다.

중국 철학의 특징은 “수사학(rhetoric)으로 논리학(logic)을 대체한다”는 것이다. 이이의 글이 전형적으로 그렇다. 내가 볼 때, 이이는 철학자가 아니라 문학자이다. 그의 글은 논리가 아닌 상상에 맡긴 논의가 대부분이다. 이황은 논리, 이이는 상상 –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역사학은 증거로 말하고, 철학은 논리로 말한다. 논리적 정합성이라는 자기 절제가 없는 철학은 문학적 상상력과 창조로 나간다. 이이와 그 후예들의 논의는 시나리오 짜는 것 비슷하다. 마치 멜로드라마 작가들이 된 것 같다. 리가 기를 타고, 기가 리를 국한시켜 사물을 만들고, 리에 선악이 있고 ... 라는 식의 형이상학적 개념들의 **의인화, 인격화**가 대표적이다.

논리적 엄밀성, 지적 금욕성이 없는 (자기 한계가 없는) 논의들은 철학적 사유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에 불과하다. 문학이라면 재미가 있다. 철학이라면 사유의 깊이가 있다. 그것들은 문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닌 정체불명의 논의들이다.

### 2) 모순 형용(Oxymoron)과 유보법

(1) **이이는 모순을 즐긴다.** 유가는 모순을 피한다. 반면 노자나 장자, 혹은 불교는 모순을 적극 활용한다. 이이는 리와 기의 관계를 “一而二, 二而一”라 한다. 초등학교도 ‘1=2, 2=1’이라 하지 않는다. 형식 논리학에서 모순은 대표적 오류이다.

형체가 없고 함이 없으나, ‘형체가 있고 함이 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은 리이다.  
형체가 있고 함이 있으나, ‘형체가 없고 함이 없음’의 그릇이 되는 것은 기이다.

無形無爲 而爲有形有爲之主者 理也,

有形有爲 而爲無形無爲之器者 氣也.(이이 → 성혼 6서)



이 역시 모순이다. 형체와 함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형체와 함이 있는 것의 주인이 되는가? 더군다나 리는 발하지도 않는다. - 이이는 자신이 말도 안 되는 모순을 말하고 있음을 자각하지 못 한다. 왜 그런가? 그가 논리적 사유를 했다면 저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문학자이기 때문이다. 문학적 상상력에서는 모순이 얼마든지 용납된다.

(2) **토 달아, 뒤통수 치기:** 이이는 100% 긍정함이 없다. 긍정 서술을 한 뒤에 꼭 토를 달아서 부정을 한다. 혹은 부정적 서술 뒤에 긍정 서술의 토를 단다. 이는 모순을 오류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유의 높은 경지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 ㉠ (리가) 기에 올라타 흘러가서 들쭉날쭉 고르지 않아도  
그 본래의 그러한 묘함은 있지 아니함이 없다.
- ㉡ 기가 치우치면 리 역시 치우친다. 그러나 치우친 것은 리가 아니다, 기이다.
- ㉢ 기가 온전하면 리 또한 온전하다. 그러나 온전한 것은 리가 아니다, 기이다.
- ㉣ 맑음과 흐림, 순수함과 잡박함, 찌꺼기와 재, 거름과 오물의 가운데에  
리가 있지 아니한 바가 없어서 각각 그 본성이 된다.  
그러나 그 ‘본래 그러한 묘함’인 즉 손상되지 않고 그 ‘스스로 그대로’이다.  
이를 일러서 “리가 통한다”고 한다.

乘氣流行, 參差不齊, 而其本然之妙, 無乎不在.

氣之偏則理亦偏, 而所偏非理也, 氣也,

氣之全則理亦全, 而所全非理也, 氣也.

至於清濁粹駁, 糟粕煨燼, 糞壤污穢之中, 理無所不在, 各爲其性,

而其本然之妙, 則不害其自若也,

此之謂理之通也.(이이 → 성혼 6서)

㉠㉡㉢㉣은 모두 토달기를 통한 모순 형용이다. 한강의 뒷물이 앞물의 뒤 통수를 치는 것이다. 이런 글을 읽다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거야?” 하는 반문이 저절로 나온다. - 리는 치우치고 개별화된거야? 아님 본래의 단일성을 가진거야? 대체 뭐야, 모야?

이런 식의 서술은 주장과 논쟁의 초점을 흐리게 만든다. 자기 주장에 자신이 없는 것인가?

### 3) 비유를 증명으로 삼기

리와 기를 읊다. (理氣詠)

으뜸 기는 어느 실마리에서 시작되는가?	元氣何端始,
형체 없음이 형체 있음에 있다.	無形在有形.
근원을 끝까지 찾으니 본래 합해짐을 알고	窮源知本合,
흐름을 따라가니 못 정기를 보네.	沿派見羣精.
물은 모나거나 둥근 그릇을 따르고,	水逐方圓器,
공기는 크거나 작은 병을 따른다.	空隨小大瓶(이이 → 성혼 5서)

이 유명한 시는 리통기국을 ‘물과 공기’ 대 ‘그릇과 병’으로 설명한다. 리는 물과 허공이고, 기는 그릇과 병이다. 이는 단지 비유이다. 그러나 이이는 이 비유에 따라 리와 기의 관계를 설정하고 생각한다. 결코 리와 기 자체를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는다. - 비유의 오류이다.

비유를 사유의 기본 모델로 삼고, 나아가 비유를 증명의 수단으로 삼는다. 반면 논리적 추론과 사실적 증거를 대는 길로 가지 않는다.

이황도 ‘사람이 말을 탐’으로 리와 기를 설명한다. 이 역시 비유의 오류를 면치 못 한다.

일반적으로 비유의 오류는 중국 철학의 고질병이다.

### 4) 덧구법

덧구는 중국의 전형적인 표현 방법이다. 주희도 덧구법의 대가이다. 이이는 덧구법에 강박 관념을 가진다. 내용의 명료성, 논리적 정합, 형이상학적 체계 등은 부차적이다. 위의 인용문들은 모두 덧구법이다. 리와 기의 관계를 형이상학적 사변과 논리적 추론으로 서술한다면, 덧구법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산문으로 가야 한다.

성리학은 리와 기의 이원론이다. 리와 기의 대칭성이 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덧구법으로 갈 수 있다. 주희가 그렇다. 반면 이이는 기 일원론이다. 결코 덧구법으로 갈 수 있는 철학 체계가 아니다. 그런데도 고집스레 덧구법에 집착한다. 왜 그런 것인가? 덧구로 표현하면 진리라고 생각한 것인가? 아니면 토 달기인가? 아니면 일원론을 이원론으로 위장하는 전술인가?

### 5) 부정적 표현

리와 기의 ‘不相離 不相雜’이 대표적이다. ‘相離-相雜’이라 하면 명확하다. 그런데 왜 부정문으로 표현하는가? 물론 주희도 그런 표현을 쓴다. 그러나 주희는 부정 표현을 즐기지 않는다. 그는 하고 싶은 말이 명확하다. 따라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이런 식의 부정 표현은 문제의 초점을 흐리게 만든다. 자기 주장에 자신이 없는 것인가? 부정 표현이 멋있는가? – 검객은 허수아비와 싸우지 않는다.

### 6) 지적인 성실성과 지적 금욕주의

이이는 자기 이론이 주희와 다르고, 나아가 모순되는 것을 몰랐던 것인가? 송시열 등 그의 후예도 마찬가지인가? 그들은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이의 심기학(心氣學)이 주희의 성리학(성리기학)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이의 심기학을 주희의 성리학인 것처럼 만든다. 이는 사기와 속임수이다. -그 결과 말이 안 되는 모순 표현이 양산된다. 많은 경우 모순의 두 갈래는 각각 심기학과 성리학을 대표한다. 모순 형용어로 그들이 같다고 한다.

이이는 천성(千聖)이 와도 자신의 말을 바꾸지 못 할 것이라는 맹자의 말을 반복한다. 이런 호연지기가 있다면, 떳떳하게 리를 부정하고 기에 근거하는 이론을 세우면 된다. 순자의 성악설 혹은 경험론 노선으로 가면 된다. 이이는 지적인 금욕주의, 지적인 용기가 없다.

서양 근대 철학이나 자연과학에는 지적인 금욕주의가 있다. 최소한의 전제에서 논리적인 추론만으로 간다. 그것이 지적인 금욕주의이다. 그렇게 도출된 결론에 대해서 용기 있게 주장하는 것, 홉스 스피노자 등이 대표적이다.

## 9. 맺는 말

이 글은 이이의 대표 이론인 ‘리통기국’을 논리적인 관점에서 분석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형이상학 이론의 기초에 근거해

서 이이의 리통기국설을 따졌다. 이이는 형이상학의 통설을 뒤집는다. 규정자인 리가 피규정자가 되고, 피규정자인 기가 규정자가 된다. 이렇게 뒤집힌 이론은 과연 무엇인가? 영성한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인가?

오해는 창조의 근원이 될 수 있다. 필자가 보건대, 이이는 기대승의 이론에서 출발하여 주희-이황의 정통 형이상학을 뒤집는다. 기대승-이이의 이론은 새로운 형이상학의 시작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새로운 학설을 세웠음에도 이이는 자신의 이론이 주희의 것과 같다고 우긴다. 심지어는 천성(千聖)이 다시 와도 내 말을 바꾸지 못 할 것이라 한다. 이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켰어야 한다.

이이의 후예들은 주희와 정반대로 간 이이의 이론을 주희의 이론이라 꾸미고 포장하는데 철학적 사유를 낭비한다. 거짓에 근거하는 한 철학의 발전은 없다. 이이의 이론은 제 길로만 갔으면 근대적 경험론의 거목으로 자랄 수 있는 것이다. 후예들은 나무를 키우기보다는, 애완견 푸들처럼 만드는 원예(園藝)를 했다. 조선 후기의 그 많은 논쟁은 거짓 위에서 있기 때문에 불모성과 불임(不妊)의 극치를 달린다.

이제라도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 이이의 이론을 아직도 주희의 이론과 같다고 우기는 한 신유학 연구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현재 필요한 것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말하는 용기이다.

## 참고문헌

- 황준연 외 역주, 『역주 사단칠정 논쟁』1, 학고방, 2009년.  
성훈, 『우계집』, 민족문화 추진회, 2000년.  
이이, 『율곡집』, 한국 고전 번역원, 1968년.

ABSTRACT

Yi Yi's Theory of "The Principle is Universal, and the Material Force Limits It" in a Metaphysical Deficiency

Son, Young-Sick

(1) Yi Yi constructed the theory of "*The principle is universal, and the material force limits it*"(PUML) through the controversy with Sung Horn. Yi's theory is a modification of Gui Dae Seung's theory that *the material force (qi) arises, and the principle (li) rides on it*. Yi developed Gui's theory onto "*the principle (li) which rides the material force (qi)*", and then upon PUML.

Yi went on the path to monism. Even though he spoke about the principle (li) and the material force (qi), he parenthesized li and leave qi. He denied the arousal of li, and went the way to approve the arousal of qi only. His method to make monism is that he include the four beginnings into the seven feelings, the original nature into physical nature. He defined that li has no form, no action, and no arousal; thus he virtually made li a non-being, leaving qi only. The moral mind (道心) and the human mind (人心) rotate around each other in a sequence so that they make one line.

In the case of the PUML theory, qi localizes li. Qi is a localizer, whereas li is a localized. As things turned out, li becomes the property of an individual thing. It is not the li of Zhuxi's theory. It is a qi monism.

(2) As a result of the unification, the mind is qi. It is a theory of self-cultivation that we modify our physical constitution, so that the mind, which is qi, can accept li. Qi is the subject (mind), while li is the object. Li is the morals and rites (禮, convention and norms). It is the same as Xunzi's evil nature theory, which contains the doctrine that changing one's physical nature is necessary to practice one's morals.

If Yi had developed his theory logically, then it would have become an empiricism. But he or his successor never did so.

**Keywords:** the Principle is universal, material force limits (the principle) (理通氣局), the material force (qi) arises, the principle (li) rides on it (氣發理乘), the principle (li) which rides the material force (qi) (乘氣之理), the principle (li) which spreads and flows (流行之理), unification

